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9호 【루게 제24742호】 주제103(2014)년 11월 25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제승냥이들과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성과 악랄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축도이며 력사의 고발장인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기남 동지, 한광상 동지, 리재일 동지, 김여정 동지, 박명철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천만군민을 반미대결전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기 위해 신천박물관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998년 11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으시였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신천박물관의 본관과 사백어머니묘, 백둘어린이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수십년 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해온 미제살인귀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후퇴시기 2개월도 못되는 기간에 신천군에서만도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000여명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미제살인귀들은 남프로소를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하였으며 굶겨죽이고 얼기어죽이였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을 어머니 품에서 강제로 빼내어 화학창고에 가둔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죽였다고, 사람들의 머리에 못을 박고 사지를 찢어 학살하는 귀족같은 만행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고 준철히 말씀하시였다.



미제가 신천땅에서 감행한 대학살만행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신천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수많은 지역들에서 미제살인귀들과 계급적원수들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족음이라고 하시면서 적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혁명을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제는 침략으로 생겨나고 침략과 약탈로 배집을 늘구며 비대해진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이라고 하시면서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오늘날에 와서 달라졌다면 저들의 침략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수법이 더욱 음흉하고 교활해진것이라고 하시면서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활적인 문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착취와 억압을 받아보지 못하고 전쟁의 엄혹한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한 오늘날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한시도 늦출수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계급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고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조선혁명의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군대와 인민에게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적관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계급교양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 날 원한의 밤나무골 화학창고에서 살아나 수 십년세월을 하루같이 계급교양진지를 지키고있는 추상원동무와 23년간 강사로 시업하고있는 박영숙동무를 만나시고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거운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계급교양을 강화하자면 신천박물관을 비롯한 전국도처에 있는 계급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을 계급교양거점의 본보기로 될수 있게 새로 다시 건설하며 박물관에 자료와 증거물들을 학술적으로 잘 전시해야 한다고, 참관에 편리하게 모든 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신천박물관에 대한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수들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밤나무골 화학창고와 사백어머니묘, 백둘어린이묘앞에서 진행되는 복수결의모임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참관자들이 원수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깊이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계급교양을 잘하자면 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사들은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말건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가는 우리 당의 핵심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는 직업적인 혁명가들이라고,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거운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혁명신념은 우리의 생명, 붉은기를 끝까지 지켜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의지

## 백두산 후손들은 승리만을 안다

우리에게는 저 푸른 하늘이 무겁게 느껴진다. 이 땅을 집어 삼키려는 전쟁의 불기둥이 가져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의 하늘은 무겁다.

우리는 원수들의 아성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무심히 대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사랑과 행복을 짓밟아버리려는 비열한 제재소동이 불어오는 어지러운 바람이기에.

허나 귀를 기울여 들어보라. 저 멀리 백두산기슭에 우줄우줄 키돋움하며 일떠서는 발전소건설의 창조적 합성이며 아찔하게 넘쳐나는 동태기슭의 동태기슭의 배고픔소리, 해빛밝은 학교들의 창가다에 넘치는 아이들의 방학한 배움의 글소리들.

그리고 정직한 눈으로 이 땅을 들여다보라. 궁핍같은 새 집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를 부르는 원아들과 연봉호반의 금방석 위에서 즐기는 휴양의 한때를 보내는 과학자들, 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무병장수를 노래하며 창춘의 활력을 되찾고있는 전쟁로병들과 풍모자들의 모습들.

우리의 조국땅 그 어디에 비탄의 신음소리 울리는 곳이 있는가. 우리의 생활 그 어디에 절망의 모습이 비끼는지 있는가.

우리는 비판을 모른다. 절망도 우리는 모른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승리만을 안다. 바로 우리는 백두산후손들이기에 영원히 승리, 승리만을 안다.

위대한 명도 자기정리동지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시대의 혁명가라면 누구나 백두산을 알아야 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생년일을 헤치는 심정으로 혁명의 길을 걸어오며 우리는 백두산의 칼바람을 끝없이 귀추는 원수들의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를 때마다 심장 대고 물어보곤 한다.

우리의 원수님께서는 이어하여 선군혁명명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백두산, 백두산으로 가시는 것인이다.

위대한 명도 자기정리동지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신념은 혁명정풍과정에 어떤 어려운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 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적원천입니다.」

일찍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사나운 눈바람을 맞아 보아야 항일혁명선열들처럼 난관을 헤쳐나갈수 있는 투쟁의 불을 안아오는 파스한 바람이다.

이러한 바람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즐겨맞으시는 분이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신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시련의 거울위에 강성변영

백두산후손!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는 우리의 눈앞에 백두산의 뒤편이 안겨온다.

삼천리강토에 억센 뿌리를 박고 이 나라의 모든 지맥을 한자락에 걸어안고 승엄하게 서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

여기에 오르면 조선을 알게 되고 혁명과 인생을 알게 된다. 여기에 오르면 간고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각오가 굳어진다.

백두산은 우리의 영원한 신념의 산악이며 백두의 눈보라는 영원히 식지 않는 조선혁명의 거대한 열풍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까지 일군들에게 백두산의 칼바람은 혁명기의 신념을 버려주는 바람, 천기를 다스리는 바람,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고 버어여주는 바람이라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칼바람은 백두산의 기상! 그래서서 아닌가. 백두산후손들이 그대도 강직한 한민족의 다진 마음 변심을 모르는것은. 백두밀림에서 억세게 지라난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을 생각해 보라.

강도 일제가 삼천리강산을 총칼로 짓밟고있던 그때 백두산이 우리 혁명의 1세대에게 안겨준것은 강직한 총과 대포였던가 아니면 그것을 대신할수 있는 억만금이었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백두의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만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었다.

백두산은 이런 혁명신념을 서재에서 제자를 깨우치듯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한번 불어 하늘땅을 울리고 울창한 수림을 풍채로 휘도는 사나운 눈바람속에서 투사들의 마음속에 억센 신념의

는듯 한 백두의 설한풍, 박달나무도 얼어붙는 흑안속에서 백두산의 칼바람을 맞으며 혁명 승리에 대한 신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던 항일투사들의

투사들에게 있어서 백두산칼바람은 모든 낙담과 비겁함을 강리케 쓸어버리고 강철같이 굳센 신념과 의지만을 버어준 혁명바람이었다.

바로 이 칼바람에 원수는 얼어붙고 우리는 얼어붙는다. 신념과 의지만이 투사들의 온몸에 열이 되어 흥겨워 흰눈을 깔고 차르신도 실장은 후더덕도 벋속까지 스며드는 차디찬 바람속에서도 조국해방의 불을 그려본것 아니라.

정명 백두산칼바람은 원수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폭풍이지만 혁명가들에게는 승리의 불을 안아오는 파스한 바람이다.

이러한 바람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즐겨맞으시는 분이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신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뿌리를 새겨주었다. 단 한번의 강타로 천지를 순간에 휩쓸어가는 무서운 힘으로 용용히 회오리치는 칼바람속에서 그 어떤 어지러운것에도 오염되지 않은 순결하고 깨끗한 넋을 심어주었다.

백두산눈보라에 얼어있고 보고 쫓겨도 보면서 신념의 강자들로 성장한 백두산후손들이 항일혁명투사들, 그들은 백두산이 안겨준 신념으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었다. 혁명신념이 끓어넘치는 심장인 피로 백두산의 피를 따라 아로 새기었다.

혁명은 신념으로 하는 것이며 신념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때부터 이 나라의 아들딸들은 백두산으로 올랐다. 어디서나 백두산에 올라 칼바람속에서 자신들을 세뇌하며 혁명신념을 버어냈다.

백두산이 그 크나큰 품, 억세인 품에 안아준 아들딸들을 어찌 천으로, 만으로 헤아릴수 있었는가.

남강도 미제의 코대를 뛰어버리고 전회의 제다미를 털어버린 이 땅에 강력한 사회주의공민 국가를 일떠세운 우리 혁명의 2세대도,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돌파한 세대들도 백두산의 칼바람, 백두산의 기상으로 혁명신념을 만장약하였고 우리 혁명의 자랑스런 승리의 역사를 전진시켜왔다.

백두산칼바람은 오늘도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신념의 강자로 키우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는 이런 글씨가 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는 이런 글씨가 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백두산의 사나운 칼바람을 맞 보시며 신념과 의지를 더 굳게 다지고 백두의 천기를 휘감아 혁명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

백두산칼바람으로 혁명신념의 날을 더욱 억세게 버어면서 우리는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수를 칠것이며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최후승리의 꽃 피는 불발을 기어이 안아오야 맞았이다.

승철진

천고의 밀림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필승의 신념이 그대로 맥박치는 이 글밭이 새겨지게 된다는 감동깊은 사연이 있다.

1호연계건설진주가 한창 진행하던 어느 12월, 혼합물수송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했다던 돌격대원들은 언제까지나 다리가동들을 세우고 배를 놓은 다음 소형기차로 혼합물수송을 보장하자라는 기발한 착상을 들고나왔다. 통나무를 잘라서 네귀를 맞추어 둘러싼 판틀식으로 다리를 구성해 대내한 대담하고 통이 큰 배를 만드는 모험을 벌였다. 다리 기둥건설진주가 시작되었다. 돌격대원들의 의지 시험해보려는듯 레너드 보기 드문 강추위와 폭설, 사나운 눈보라가 들어닥쳤다.

하지만 그 어떤 폭설도 눈보라도 돌격대원들의 신념을 꺾지 못했다.

흙과 돌을 다져넣은 마대의 무게는 보통 30~40kg, 그것을 메고 돌격대원들이 하루종일 달린 거리는 왕복 80~90리, 최고 105리!

그리고 성하지 않아 더 많이, 더 빨리 하며 돌격대원들이 전투를 벌이고있을 때 기차까지 전두장에서는 얼음장과의 전투가 벌어졌다.

암반이 나서지 않게 되자 소철레루를 안고 강물속에 뛰여는 결사대원들, 얼음베개가 동동 떠도는 강물속에서 구리빛 얼음들은 차츰 거무스레하게 얼어갔다 그들의 입에서는 항일의 나날 백두밀림에서 울리던 노래 《적기가》가 울려나왔다.

혁명은 신념으로 하는 것이며 혁명신념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이런 신념의 강자들이 있어서이다. 침략의 불기둥이 항시적으로 머리를 때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악착하고 비열한 제재의 광풍이 몰아치지만 이 땅에서 창조와 건설의 노래 소리 더 높이 울려나오고 인민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퍼지는 것은.

원수들이 우리의 앞길을 끈질기게 막아설수록,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모든 사랑과 행복을 빼앗으려고 악착하게 책탈수록 천만군민의 마음은 더욱더 백두산으로 달랐다. 혁명의 산산에서 칼바람, 눈바람속에서 자신을 세뇌하며 혁명승리의 진리를 새기었다.

혁명은 신념으로 하는 것이며 혁명신념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본사기자 림현숙

우리는 붉은기를 지키리라

은몽이 그대로 얼음기둥이 되어 다리기둥을 일떠세운 돌격대원들, 그들은 언제까지나 소형기차주행로가 펼쳐졌을 때 신념의 글밭을 새기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이 글밭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가려는 그들의 억센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어찌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만이었는가.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과학연구기에서, 행복의 불빛을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한 청년과학자발전소건설장에도, 다음에 농사차비에 펼쳐나선 온 나라의 협동법대에도 승리의 배일을 마중해가는 신념의 강자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다.

이런 신념의 강자들이 있어서이다. 침략의 불기둥이 항시적으로 머리를 때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악착하고 비열한 제재의 광풍이 몰아치지만 이 땅에서 창조와 건설의 노래 소리 더 높이 울려나오고 인민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퍼지는 것은.

원수들이 우리의 앞길을 끈질기게 막아설수록,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모든 사랑과 행복을 빼앗으려고 악착하게 책탈수록 천만군민의 마음은 더욱더 백두산으로 달랐다. 혁명의 산산에서 칼바람, 눈바람속에서 자신을 세뇌하며 혁명승리의 진리를 새기었다.

혁명은 신념으로 하는 것이며 혁명신념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이런 신념의 강자들이 있어서이다. 침략의 불기둥이 항시적으로 머리를 때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악착하고 비열한 제재의 광풍이 몰아치지만 이 땅에서 창조와 건설의 노래 소리 더 높이 울려나오고 인민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퍼지는 것은.

원수들이 우리의 앞길을 끈질기게 막아설수록,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모든 사랑과 행복을 빼앗으려고 악착하게 책탈수록 천만군민의 마음은 더욱더 백두산으로 달랐다. 혁명의 산산에서 칼바람, 눈바람속에서 자신을 세뇌하며 혁명승리의 진리를 새기었다.

혁명은 신념으로 하는 것이며 혁명신념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이런 신념의 강자들이 있어서이다. 침략의 불기둥이 항시적으로 머리를 때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악착하고 비열한 제재의 광풍이 몰아치지만 이 땅에서 창조와 건설의 노래 소리 더 높이 울려나오고 인민의 웃음소리 더 높이 울려퍼지는 것은.

원수들이 우리의 앞길을 끈질기게 막아설수록,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모든 사랑과 행복을 빼앗으려고 악착하게 책탈수록 천만군민의 마음은 더욱더 백두산으로 달랐다. 혁명의 산산에서 칼바람, 눈바람속에서 자신을 세뇌하며 혁명승리의 진리를 새기었다.

혁명은 신념으로 하는 것이며 혁명신념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 우리 원수님을 그리는 밤

3개의 몸무게급 역경기에서 세계기록갱신! 3:1로 일변너자축구팀을 타승! ...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룩한 이러한 성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남겼다. 우승의 비결은 무엇인가? 지금도 알고싶어하는 그 대답을 우리 선수들은 이미 해주었다.

지난 9월 27일 인천에서 우리의 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성원들이 펼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그리는 밤》모임.

고향의 천어버이를 그리는 아들딸들이 격정에 젖은 목소리, 뜨겁게 울려내리는 눈물, 서로서로 굳게 잡은 손들을 높이 들고 원수님, 그림 해주었다.

자기가 신봉하는 사상을 위하여 목숨도 주저없이 내밀수 있는가? 이 물음에 몇몇한 사람들을 두고 사상의 강자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난 1월 삼주군문화회관에 뜻밖의 화재가 나게 되었다.

다급히 뛰어들어오는 말자 옥소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품고 안고 빨리 나가야 한다고 웨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대 앞쪽에서는 4명의 사람들이 8m나 되는 높은 곳에 있는

대형구조관을 내리우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있었다. 세사람은 사다리를 잡고 한사람은 오르고있었다. 그들은 불덩이들이 비호도 쏟아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직 회관안에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알고 들어온 두사람이 합세하여 대형구조관을 안전하게 내리는 순간에 천정이 무너져내리었다. 보통 때같은데 그 인연으로 내리울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 거대하고 육중한 구조관에는,

세위군, 자신들의 행복을 삶과 자식들의 앞날까지 다 맡아 보살펴주는 고마운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다.

리만수동무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 있었다.

「사회주의 이 제도가 얼마나 좋으나. 이 제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야 함을 잊지 말라.」

산정초소의 공화국기발을 말해 주었다.

우리 제도가 제일, 이것이 피처럼 흐르고있어 이 나라 공민들의 신념이 그러도 억세진것이라고.

산정초소의 공화국기발

을 시작한 그들은 텔레비존 중계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관리하였으며 90여대의 전주대를 새로 세우고 1만 200여명의 동력선도 자체로 높여갔다.

국가적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자그마한 트랙에 정중히 서서 공화국기발을 높이 띄울 때는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 두누나 눈물을 흘리었다.

공화국기발앞에서 흘러는 눈물, 그것은 해방전 남의 집 아이보개였던 천덕꾸러기와 그의 자식들을 품어 안아 온 한복 받지 않고 공부시켜 내

사상의 강자들

그들이 끝까지 품에 안고있는 구조관에는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하자!》라는 구호가 새겨져있었다.

만일 그날에 희생된 사람들이 기억같이 살아있었다면 한결같이 말하였을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이 제일, 이것이 자기들의 신념이었다고.

목숨바쳐 당의 기본요를 보위한 그들의 최후가 이것을 말해주었다.

세위군, 자신들의 행복을 삶과 자식들의 앞날까지 다 맡아 보살펴주는 고마운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다.

리만수동무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 있었다.

「사회주의 이 제도가 얼마나 좋으나. 이 제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야 함을 잊지 말라.」

산정초소의 공화국기발을 말해 주었다.

우리 제도가 제일, 이것이 피처럼 흐르고있어 이 나라 공민들의 신념이 그러도 억세진것이라고.

세위군, 자신들의 행복을 삶과 자식들의 앞날까지 다 맡아 보살펴주는 고마운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다.

리만수동무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 있었다.

「사회주의 이 제도가 얼마나 좋으나. 이 제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야 함을 잊지 말라.」

산정초소의 공화국기발을 말해 주었다.

우리 제도가 제일, 이것이 피처럼 흐르고있어 이 나라 공민들의 신념이 그러도 억세진것이라고.

세위군, 자신들의 행복을 삶과 자식들의 앞날까지 다 맡아 보살펴주는 고마운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다.

리만수동무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 있었다.

「사회주의 이 제도가 얼마나 좋으나. 이 제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야 함을 잊지 말라.」

산정초소의 공화국기발을 말해 주었다.

우리 제도가 제일, 이것이 피처럼 흐르고있어 이 나라 공민들의 신념이 그러도 억세진것이라고.

세위군, 자신들의 행복을 삶과 자식들의 앞날까지 다 맡아 보살펴주는 고마운 어머니 조국에 드리는 감사의 인사였다.

리만수동무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 있었다.

「사회주의 이 제도가 얼마나 좋으나. 이 제도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쳐야 함을 잊지 말라.」

산정초소의 공화국기발을 말해 주었다.

우리 제도가 제일, 이것이 피처럼 흐르고있어 이 나라 공민들의 신념이 그러도 억세진것이라고.

## 갈바람과 따스한 바람

투사들에게 있어서 백두산칼바람은 모든 낙담과 비겁함을 강리케 쓸어버리고 강철같이 굳센 신념과 의지만을 버어준 혁명바람이었다.

바로 이 칼바람에 원수는 얼어붙고 우리는 얼어붙는다. 신념과 의지만이 투사들의 온몸에 열이 되어 흥겨워 흰눈을 깔고 차르신도 실장은 후더덕도 벋속까지 스며드는 차디찬 바람속에서도 조국해방의 불을 그려본것 아니라.

정명 백두산칼바람은 원수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폭풍이지만 혁명가들에게는 승리의 불을 안아오는 파스한 바람이다.

이러한 바람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즐겨맞으시는 분이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신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시련의 거울위에 강성변영

투사들에게 있어서 백두산칼바람은 모든 낙담과 비겁함을 강리케 쓸어버리고 강철같이 굳센 신념과 의지만을 버어준 혁명바람이었다.

바로 이 칼바람에 원수는 얼어붙고 우리는 얼어붙는다. 신념과 의지만이 투사들의 온몸에 열이 되어 흥겨워 흰눈을 깔고 차르신도 실장은 후더덕도 벋속까지 스며드는 차디찬 바람속에서도 조국해방의 불을 그려본것 아니라.

정명 백두산칼바람은 원수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폭풍이지만 혁명가들에게는 승리의 불을 안아오는 파스한 바람이다.

이러한 바람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즐겨맞으시는 분이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신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시련의 거울위에 강성변영

투사들에게 있어서 백두산칼바람은 모든 낙담과 비겁함을 강리케 쓸어버리고 강철같이 굳센 신념과 의지만을 버어준 혁명바람이었다.

바로 이 칼바람에 원수는 얼어붙고 우리는 얼어붙는다. 신념과 의지만이 투사들의 온몸에 열이 되어 흥겨워 흰눈을 깔고 차르신도 실장은 후더덕도 벋속까지 스며드는 차디찬 바람속에서도 조국해방의 불을 그려본것 아니라.

정명 백두산칼바람은 원수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폭풍이지만 혁명가들에게는 승리의 불을 안아오는 파스한 바람이다.

이러한 바람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즐겨맞으시는 분이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신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시련의 거울위에 강성변영

## 천출명장의 담력으로 우리는 이겼다

기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으며 사기를 올렸다.

바로 그 시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계신중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날 우리들을 몸가끼아 불러 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등무름은 이어올 때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다정히 물으시었다.

기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으며 사기를 올렸다.

바로 그 시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계신중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날 우리들을 몸가끼아 불러 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등무름은 이어올 때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다정히 물으시었다.

기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으며 사기를 올렸다.

바로 그 시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계신중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날 우리들을 몸가끼아 불러 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등무름은 이어올 때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다정히 물으시었다.

기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으며 사기를 올렸다.

바로 그 시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계신중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날 우리들을 몸가끼아 불러 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등무름은 이어올 때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다정히 물으시었다.

기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으며 사기를 올렸다.

바로 그 시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계신중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날 우리들을 몸가끼아 불러 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등무름은 이어올 때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다정히 물으시었다.

기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으며 사기를 올렸다.

바로 그 시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계신중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날 우리들을 몸가끼아 불러 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등무름은 이어올 때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다정히 물으시었다.

기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으며 사기를 올렸다.

바로 그 시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계신중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날 우리들을 몸가끼아 불러 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등무름은 이어올 때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다정히 물으시었다.

기쁜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읊으며 사기를 올렸다.

바로 그 시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계신중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날 우리들을 몸가끼아 불러 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등무름은 이어올 때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가 다정히 물으시었다.

## 2014년 세계위생시설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 진행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014년 세계위생시설의 날에 즈음한 토론회가 24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도시경영성, 보건성,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단위 일군들과 주조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 우리 나라에 교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이어 《세계위생시설의 날과 위생시설개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개선된 형식의 농촌위생시설설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토론회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세계위생시설의 날의 유래와 세계적인 공

중위생위기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오늘날 환경과 교육, 녀성과 어린이들의 건강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있는 위생시설개선훈제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적대책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농촌의 위생시설개조와 관련한 과학영화를 시청하였다.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해 계획설계에서 지혜를 합쳐간다. -평양도시계획연구소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총정의 마음안고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셔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나날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대원수님들에 대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맑고 깨끗한 마음과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대원수님들의 유흔을 총각하게 받들어온날 맹세가 더욱 굳게 다져진 총정의 날이 되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셔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나날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대원수님들에 대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맑고 깨끗한 마음과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대원수님들의 유흔을 총각하게 받들어온날 맹세가 더욱 굳게 다져진 총정의 날이 되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셔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나날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대원수님들에 대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맑고 깨끗한 마음과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대원수님들의 유흔을 총각하게 받들어온날 맹세가 더욱 굳게 다져진 총정의 날이 되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셔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나날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대원수님들에 대한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맑고 깨끗한 마음과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대원수님들의 유흔을 총각하게 받들어온날 맹세가 더욱 굳게 다져진 총정의 날이 되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셔갔다. -본사기자 현경철 찍음

#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반역무리들은 비참한 죽음을 면치 못한다

## 합의파기로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킨 주범

### 대결에 미친 군부깡패의 악담

최저자 말이 많다고 피뢰패당이 모처럼 개선의 기회를 맞았던 북한관계를 송두리째 말아먹은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고 내외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그 무슨 《합의준수》 타령을 꾸미듯 불어대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꿰뚫어 보면 거대한 커다란 기대와 판심속에 일렁이 울랐던 북한고위급접촉이 성사되지 못한 것도, 북한관계가 다시금 파국의 수렁속에 빠진 것도 다 우리가 쌍방합의를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피뢰패들은 그 누구의 《합의위반》이니, 《무책임한 모습》이니 하고 파렴치하게 놀아내고 있다. 그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고 고아네는 격의 첩첩피한 망당이 아닐수 없다. 사태가 오늘날처럼 험악해진 것이 다름 아닌 피뢰패당때문이 아니라 말인가. 족제비도 날뛰어 있다는데 그대위 머무지 않는 생역지를 부릴 때 입이 거저지 않았나.

북남합의의 사상과 제도, 리범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이루어진 민족공동의 결과물로서 반드시 지켜지고 실현되어야 한다. 그 리범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도이다. 그 누구도 민족앞에 서약한 북한합의들을 제멋대로 어길 권리가 없다.

하지만 역대 남조선당국자들은 쌍방합의를 제멋대로 짓밟고 파기하였으므로 북한관계를 끊임없이 악화시켜왔다.

그 뿌리는 일제기 《유신》독재 《정권》의 동족대결야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세기 70년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채택되어 온 겨레의 자주평화통일지향의 급속히 높아가던 때 《유신》대결정책들이 그에 도전하는 《6.23 특별선언》을 조작해내어 우리를 배신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족의 희망과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 동족대결의 더러운 피줄을 그대로 이은 리범야적파당

역시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한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 선언을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그 리범을 거부하였고 감히 《할것》, 《못할것》, 《나중에 할것》 등으로 선언들을 칼질하다 못해 나중에는 《전면무효》를 선포하는 망당까지 부러웠다. 그 결과 민족의 희망한 미래를 약속하며 활기있게 전진해오던 북한관계는 10여년전의 불신과 대결의 과거에로 되돌아가고말았다. 《유신》의 직접적후예인 현 피뢰패당의 북한합의유린행동은 그야말로 조상을 등가하는 가장 악랄한 것이다.

제2차 북한고위급접촉과 관련한 합의문제를 놓고보자, 우리는 북한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동로로 만들고 북한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에 애중, 애민, 애국의 의지를 안고 최고위급대표단의 인민방문을 계기로 북한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뢰패당은 온 겨레의 기대에 합의가 이뤄지지 3일만에 서남해상열점수역에서 도발행동을 부리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당시 우리는 피뢰패당의 상투적인 책임전가술음과 불법부법의 《북방한선언》 고수소동에 불구하고 최대의 인내성을 가지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접촉을 실현하였으며 관계개선의 기운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성의껏 제안하였다. 하지만 첩첩피한 남측은 쌍방사이에 이룩한 3차 남북 합의가 230건이 넘는다는니, 기존의 것보다 리범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새로운 합의가 필요없다느니 하며 무턱대고 거부해나갔다.

모든 것이 예견됐던바 그대로였고 앞에 서는 웃고 돌아앉아서는 주먹질하고 칼을 가는 그들의 악습은 갈데 없었다.

올해 초 북한고위급접촉때에도 피뢰패당은 우리의 리범중상증지에 대하여 약속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달라》, 《이제 지켜보면 알것》이라고 하고는 합의를 이루기 바쁘게 우리를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배라를 살포하며 대결광기를 부러뜨렸다. 그대에도 지금까지 군사연습이 끝나면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는 것처럼 술을 어른을 내 돌리며 파렴치하게 놀아냈다.

피뢰패들이 날로 더욱 악랄하게 강행하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도 북한합의에 대한 정면도전, 악랄한 파기행위이다.

지금껏 피뢰패들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핵과 《인권문제》를 머무르지 않고 끌고들며 우리의 존엄과 체체를 정면도전하여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유엔에서 미국이 주도한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에 앞장서 날뛰었으며 지금은 올레중에 저들도 《북인권법》을 무조건 제정하겠다고 분부장을 띄우고 있다.

애당초 극악한 친미사대행위와 반인민적악행, 파쇼적독재 온 남조선정당을 민생지옥, 자살지옥, 인권폐허로 만든 피뢰패들이 누구에 대해 《인권》, 《문화》나 하고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망당수괴의 웃을 피비귀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피뢰패가 제 정면에서 도 모자라 해외에 나가서까지 불신한 《인권》판대극을 벌여놓고있는 것은 그들이 동족대결에 얼마나 환장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피뢰패당이 전요하게 강행하고있는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서로 비방소동을 하지 않음에 대한 북한합의의 판공회 위반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은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자주적평화통일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는 웃고 돌아앉아서는 주먹질하고 칼을 가는 그들의 악습은 갈데 없었다.

올해 초 북한고위급접촉때에도 피뢰패당은 우리의 리범중상증지에 대하여 약속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달라》, 《이제 지켜보면 알것》이라고 하고는 합의를 이루기 바쁘게 우리를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배라를 살포하며 대결광기를 부러뜨렸다. 그대에도 지금까지 군사연습이 끝나면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는 것처럼 술을 어른을 내 돌리며 파렴치하게 놀아냈다.

피뢰패들이 날로 더욱 악랄하게 강행하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도 북한합의에 대한 정면도전, 악랄한 파기행위이다.

지금껏 피뢰패들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핵과 《인권문제》를 머무르지 않고 끌고들며 우리의 존엄과 체체를 정면도전하여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유엔에서 미국이 주도한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에 앞장서 날뛰었으며 지금은 올레중에 저들도 《북인권법》을 무조건 제정하겠다고 분부장을 띄우고 있다.

애당초 극악한 친미사대행위와 반인민적악행, 파쇼적독재 온 남조선정당을 민생지옥, 자살지옥, 인권폐허로 만든 피뢰패들이 누구에 대해 《인권》, 《문화》나 하고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망당수괴의 웃을 피비귀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피뢰패가 제 정면에서 도 모자라 해외에 나가서까지 불신한 《인권》판대극을 벌여놓고있는 것은 그들이 동족대결에 얼마나 환장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피뢰패당이 전요하게 강행하고있는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서로 비방소동을 하지 않음에 대한 북한합의의 판공회 위반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은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자주적평화통일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는 웃고 돌아앉아서는 주먹질하고 칼을 가는 그들의 악습은 갈데 없었다.

올해 초 북한고위급접촉때에도 피뢰패당은 우리의 리범중상증지에 대하여 약속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달라》, 《이제 지켜보면 알것》이라고 하고는 합의를 이루기 바쁘게 우리를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배라를 살포하며 대결광기를 부러뜨렸다. 그대에도 지금까지 군사연습이 끝나면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는 것처럼 술을 어른을 내 돌리며 파렴치하게 놀아냈다.

제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면서 배라살포에 열을 올리고 반공화국모략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있다. 피뢰패당의 파렴치한 북한합의파기행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총지박산나고 최악의 긴장상태가 조성된것이 오늘의 북한관계이고 조선반도이다.

피뢰패들은 입이 열개라도 북한합의를 파기하고 관계개선의 소중한 분위기를 말아먹은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우리가 그동안 피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이 극심한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려는 의지로부터 북한관계개선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는것은 세상사가 다 알고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선의에 이취한 구도의 악의로 대담해나서고 있다.

민족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가기려는 동족의 진심어린 제안은 뿌리치고 외세적악행, 파쇼적독재 온 남조선정당을 민생지옥, 자살지옥, 인권폐허로 만든 피뢰패들이 누구에 대해 《인권》, 《문화》나 하고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망당수괴의 웃을 피비귀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피뢰패가 제 정면에서 도 모자라 해외에 나가서까지 불신한 《인권》판대극을 벌여놓고있는 것은 그들이 동족대결에 얼마나 환장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피뢰패당이 전요하게 강행하고있는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서로 비방소동을 하지 않음에 대한 북한합의의 판공회 위반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은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자주적평화통일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는 웃고 돌아앉아서는 주먹질하고 칼을 가는 그들의 악습은 갈데 없었다.

올해 초 북한고위급접촉때에도 피뢰패당은 우리의 리범중상증지에 대하여 약속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달라》, 《이제 지켜보면 알것》이라고 하고는 합의를 이루기 바쁘게 우리를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배라를 살포하며 대결광기를 부러뜨렸다. 그대에도 지금까지 군사연습이 끝나면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는 것처럼 술을 어른을 내 돌리며 파렴치하게 놀아냈다.

제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면서 배라살포에 열을 올리고 반공화국모략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고있다. 피뢰패당의 파렴치한 북한합의파기행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총지박산나고 최악의 긴장상태가 조성된것이 오늘의 북한관계이고 조선반도이다.

피뢰패들은 입이 열개라도 북한합의를 파기하고 관계개선의 소중한 분위기를 말아먹은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우리가 그동안 피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이 극심한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려는 의지로부터 북한관계개선을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 기울여왔다는것은 세상사가 다 알고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선의에 이취한 구도의 악의로 대담해나서고 있다.

민족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가기려는 동족의 진심어린 제안은 뿌리치고 외세적악행, 파쇼적독재 온 남조선정당을 민생지옥, 자살지옥, 인권폐허로 만든 피뢰패들이 누구에 대해 《인권》, 《문화》나 하고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망당수괴의 웃을 피비귀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피뢰패가 제 정면에서 도 모자라 해외에 나가서까지 불신한 《인권》판대극을 벌여놓고있는 것은 그들이 동족대결에 얼마나 환장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피뢰패당이 전요하게 강행하고있는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은 서로 비방소동을 하지 않음에 대한 북한합의의 판공회 위반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은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자주적평화통일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해치는 웃고 돌아앉아서는 주먹질하고 칼을 가는 그들의 악습은 갈데 없었다.

올해 초 북한고위급접촉때에도 피뢰패당은 우리의 리범중상증지에 대하여 약속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달라》, 《이제 지켜보면 알것》이라고 하고는 합의를 이루기 바쁘게 우리를 반대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배라를 살포하며 대결광기를 부러뜨렸다. 그대에도 지금까지 군사연습이 끝나면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는 것처럼 술을 어른을 내 돌리며 파렴치하게 놀아냈다.

여말전 미국과 추종세력이 유엔에서 대조선 《인권결의》를 조작해내는 파렴치한 정치사기극이 벌어졌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 공화국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참을수 없이 건드리는 적대세력들의 광란적인 《인권》소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는 초강경대응원장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우리의 추상같은 불효형에 당황망조한 피뢰패들은 국방부대변인 김민석을 내세워 도발적악담을 또다시 쉼지 않았다. 며칠전 이자는 기자회견에서 그 누구의 주장이 《핵시험과 탄도미사일발사》로 이어질수 있다고 고대하면서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제를 혼시질을 했는가 하면 그 무슨 《대비테세》를 운운하며 호전적광기를 부러뜨렸다.

어두운 곳에 사는 두더지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정황과나, 문외한이지만 상전의 말을 앵무새처럼 흉물 떠맡아우기 잘하는 덕에 발목을 굳건히 이어가는 가련한 나팔수가 바로 김민석이다. 이자는 지난 5월 저들이 강조고안했던 《북무인기사건》을 구실로 감히 《없어져야 할 나라》니 뭐니 하는따위의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악담구니질을 하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연평도사건이 있은지 4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폐전의 효훈을 잊지 말라고 한 우리 군대의 정당한 경교에 대해 제언에서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끌고들며 《도발원천은 물론 지원세력, 지휘체력까지 즉각 응징》하겠다고 하는 호전적광담을 또다시 내뿜은 것도 이자이다.

아무리 미련한자도 제 허물이 두러워 말을 아낀다고 하겠는데 김민석이 아직까지 허바다를 함부로 놀리는것을 보면 동족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정신착란중에 걸린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미련한자의 지절 임파워는 달라고 짓대는 개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악담에 내외여론을 오도하면서 북한관계를 더욱 험악한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위험한 기도가 깔려있기에 절대로 목박할수 없다.

김민석이 그 누구의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비테세》를 운운하며 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는데는 저들이 버리고있는 반공화국 《인권》모략책동의 침략적목적용을 가리우며 그것을 점차 북침해전경도발에로 확대하려는 피뢰패당들의 범죄적책임이 그대로 잘려나갔다.

최근 남조선피뢰패들은 북한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야망을 뿌리치고 미국과 함께 《호국》합동군사연습을 사상 최대규모로 벌려놓았다.

연평도사건 4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쿠무보수장대들을 내몰아 도처에서 도발광대군을 벌리고 무력시위를 하면서 우리를 극도로 자극하였다. 그에 이어 이번엔 유엔에서 미국의 더러운 거수기가 되어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조작해내는 피뢰패당들의 범죄적책임이 그대로 잘려나갔다.

남조선의 력대 그 어느 통치배들도 현 피뢰패정권자들처럼 《인권》의 간판밑에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체체를 어찌하려고 그렇게 피눈이 되어 날런것은 일찍이 없었다. 이로써 북한관계파괴자, 극악한 대결전쟁미치광이로서의 피뢰패당의 정체는 날날이 드러났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역도는 저들에 대한 내외의 비난여론을 잠재우고 북침전쟁의 도발선에 거머 붙을 지르기 위한 도발적행동을 합리화하려고 머무니없는 악담을 늘어놓았다.

피뢰패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최고존엄과 체체를 결코 건드릴수 없는 그 누구의 손에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피뢰패당들의 호전적광담이 미국과의 북침전쟁도발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릴수록 그것은 우리의 자주적역력강화에 정당성만 부여해줄뿐이다.

피뢰패들은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체체를 모독한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가를 몸서리치게 깨닫게 될것이다.

박 철 준

# 남조선피뢰패당은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초래될 파멸적후과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 민족 화해 협의 회 대변인 담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한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은 지금 내외반통일적대세력의 우리에 대한 《인권》모략책동에 대한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얼마전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의해 범죄적인 반공화국 《인권결의》가 날조된것은 우리 존엄과 우리 제도,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도전으로서 온 나라 천만국민의 지침은 적분을 불리워주고있다.

적분불리의 남강도적인 망당이 이제 북한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 누구도 가늠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같이 지명부서들중 모르는 것으로 피뢰패당은 《환영》이니, 《국제사회의 우려의 반영》이니 뭐니 하며 가소롭게 놀아내고있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피뢰패당은 그 무슨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조작해내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가 하면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끌어들이고 남조선총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몰아붙이고있다.

리싱을 잃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

피뢰패당은 그 무슨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조작해내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가 하면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끌어들이고 남조선총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몰아붙이고있다.

리싱을 잃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

피뢰패당은 그 무슨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조작해내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가 하면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끌어들이고 남조선총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몰아붙이고있다.

리싱을 잃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

피뢰패당은 그 무슨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조작해내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가 하면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끌어들이고 남조선총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몰아붙이고있다.

리싱을 잃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

피뢰패당은 그 무슨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조작해내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가 하면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끌어들이고 남조선총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몰아붙이고있다.

리싱을 잃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

피뢰패당은 그 무슨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조작해내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가 하면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끌어들이고 남조선총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몰아붙이고있다.

리싱을 잃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

피뢰패당은 그 무슨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조작해내고 피눈이 되어 날뛰는가 하면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끌어들이고 남조선총을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몰아붙이고있다.

리싱을 잃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

# 피뢰패당의 반공화국범죄는 반드시 계산될것이다

스스로 화를 청한 미치광이들

지금 남조선피뢰패들이 미국상전의 주도하에 저들이 앞장서 발기한 반공화국 《인권결의》가 유엔에서 강압통과되자 숨이 가빠서 《환영》이니 뭐니 하며 분부장을 띄워대고있다. 대정당 격분스럽기 그지없다. 더우기 《국회》에서 《북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느니, 유엔 《북인권사무소》의 설치를 확정한다느니 하며 남조선정권은 국제적인 반공화국 《인권》모략의 소굴로 만들려고 발악하고있으니 너무도 놀라워하고 있다.

원래 피뢰패들이 입에 게거품을 물고 우리 공화국을 헐뜯어 왔듯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벌든

고양이의 가발은 신음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사람들이 피뢰패당을 일으키며 떠들어대는데 그 수작이 너무 지겨워 이젠 더는 참을수 없다.

피뢰패들에 외세의 폭주자들이 되어 민족을 반역한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것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지구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 대결미치광이들의 사생배를 분질러버야 한다.

우리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금 당장이라도 대결에 미쳐 죽을지 살지 모르고 헤매비는 피뢰패당을 바다물속에 처넣고 있는 심정이다.

평안북도간석시건설련합기업소 기사장 서원길

고양이의 가발은 신음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사람들이 피뢰패당을 일으키며 떠들어대는데 그 수작이 너무 지겨워 이젠 더는 참을수 없다.

피뢰패들에 외세의 폭주자들이 되어 민족을 반역한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것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지구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 대결미치광이들의 사생배를 분질러버야 한다.

우리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금 당장이라도 대결에 미쳐 죽을지 살지 모르고 헤매비는 피뢰패당을 바다물속에 처넣고 있는 심정이다.

평안북도간석시건설련합기업소 기사장 서원길

고양이의 가발은 신음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사람들이 피뢰패당을 일으키며 떠들어대는데 그 수작이 너무 지겨워 이젠 더는 참을수 없다.

피뢰패들에 외세의 폭주자들이 되어 민족을 반역한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것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지구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 대결미치광이들의 사생배를 분질러버야 한다.

우리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금 당장이라도 대결에 미쳐 죽을지 살지 모르고 헤매비는 피뢰패당을 바다물속에 처넣고 있는 심정이다.

평안북도간석시건설련합기업소 기사장 서원길

고양이의 가발은 신음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사람들이 피뢰패당을 일으키며 떠들어대는데 그 수작이 너무 지겨워 이젠 더는 참을수 없다.

피뢰패들에 외세의 폭주자들이 되어 민족을 반역한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것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지구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 대결미치광이들의 사생배를 분질러버야 한다.

우리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금 당장이라도 대결에 미쳐 죽을지 살지 모르고 헤매비는 피뢰패당을 바다물속에 처넣고 있는 심정이다.

평안북도간석시건설련합기업소 기사장 서원길

고양이의 가발은 신음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사람들이 피뢰패당을 일으키며 떠들어대는데 그 수작이 너무 지겨워 이젠 더는 참을수 없다.

피뢰패들에 외세의 폭주자들이 되어 민족을 반역한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것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지구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 대결미치광이들의 사생배를 분질러버야 한다.

우리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금 당장이라도 대결에 미쳐 죽을지 살지 모르고 헤매비는 피뢰패당을 바다물속에 처넣고 있는 심정이다.

평안북도간석시건설련합기업소 기사장 서원길

고양이의 가발은 신음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사람들이 피뢰패당을 일으키며 떠들어대는데 그 수작이 너무 지겨워 이젠 더는 참을수 없다.

피뢰패들에 외세의 폭주자들이 되어 민족을 반역한 대가가 얼마나 쓰디쓴것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지구를 소란스럽게 하는 이 대결미치광이들의 사생배를 분질러버야 한다.

우리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지금 당장이라도 대결에 미쳐 죽을지 살지 모르고 헤매비는 피뢰패당을 바다물속에 처넣고 있는 심정이다.

평안북도간석시건설련합기업소 기사장 서원길

#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똑바로 보라

리 공화국을 모욕하려고 발광하고있으니 너무도 놀라워하고 있다. 원



피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인민들

# 민족의 존엄지켜 악의 아성을 짓부셔버릴것이다

이 행성에 미국만큼 무지하고 시대감각이 둔한 나라는 없다. 지금껏 우리를 정치적으로 괴롭히고 경제적으로 침식시키며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얼마나 많은 《결의》들을 고안해왔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그들자신도 어지간히 땀을 빼야 할것이다.

문제는 워싱턴의 모략의 명수들이 만들어내고 역대 집권자들이 경행해온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이 어긋나 한 빛을 보지 못하고있는데 있다. 이번에도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내세워 지표를 굽어모아 감압과파시킨 반공화국 《인권결의》도 다를바 없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과다도 없이 고안해낸것으로 하여 파벌의 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존엄을 해코지하려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는 우리 공화국이다.

우리 인민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목숨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뼈에 새긴 인민이다. 지난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대변하는 황제가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 전신하고 다른 나라 살인악당들이 제멋대로 황후를 칼질쳐죽여도 민족적 존엄을 세우기는커녕 눈물로 감수해야만 했던 우리 겨레였다. 《시리아방정대국》의 구절구절을 읽고 들으며 가슴을 뛰어들어 보고 국제회의장에서 배를 가르면서까지 민족의 존엄을 지키려고도 해보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존엄은 너무나 자주도 무참히 짓밟혔다. 세상에 소리없이 자랑하는 반민권의 유구한 역사도, 찬란한 문화도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였다.

우리 민족의 피눈물나는 역사는 민족의 존엄은 자기자신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임을 뉘뉘이 자랑하며 가슴을 쭉 펴고 긍지높이 살아간다. 령강들의 각축전속해 땅국의 운명을 감수하며 자기의 고유한 성격과 이름마저 영영 빼앗길뉘 한 우리 민족의 존엄은 하늘에 닿고있다. 세계에 몇 안되는 핵보유국이라는 자부심때문이 아니다. 그 어떤 풍파가 들이닥쳐도 고마운 사회주의의 조국이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는 억척같은 신념이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높은 민족적 존엄과 자존심을 간직하게 하여주고있다.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서 천만군민은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것을 철의 단위로 새겨안았다.

전체 인민이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 지적으로, 도덕리적으로 굳게 뭉치고는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있는 것은 우리 사회주의의 본질적특성이며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도자이시기 전에 사회주의 대가정의 자어로운 어머니이기도하다.

부방의 철의 기지와 드넓은 전야, 외진 섬마을과 조국의 방산초소, 기념비적 창조물에도 결세위인들의 위대하고 성스러운 자욱이 빛나게 새겨져있고 우리 인민들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내려오는 행복찬 생활의 갈피갈피에는 한평생 가까이 구경해오신 어머니의 사랑과 은적이 뜨겁게 들끓어있다.

은근 인민을 위해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서 슬하의 천만 자식들은 배심든든하였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어머니의 최애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제도를

삼의 요람으로 귀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우리 인민의 삶의 전부인 사회주의를 우리는 결코 버릴수 없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펼쳐나선 인민의 투쟁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다. 미국이 역대 조미대결에서 언제나 패한것은 조선인민이 이겨낸 정신력을 보지도, 알리고도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이 벌리는 《인권》소동을 엄중한 정치적도발로, 우리의 자주권과 국권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인권이 자국이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마다 역사와 풍습,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생활방식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인권보장제도는 그 나라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각이하게 설정되게 된다. 어느 한 나라, 특정한 세력의 구미에 맞는 인권기준을 다른 나라들에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는것은 곧 국권유린으로 된다.

세계에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있어도 모든 나라들은 국제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 누구에게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자주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 더구나 미국은 수십년째 메뚜기처럼 지 못하고있는 조선반도평화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것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피해자인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존중하며 친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부당한 의사와 요구를 우리 인민에게 강요하며 잘못된 길을 걷고있다. 전 진전세력이었던 부위일당이 우리를 《악의 축》으로 몰아대며 흉악무도한 대조선침략행동에 광분하였다면 오늘날의 오바마일당은 《북인권문제》에 대하여 떠들면서 우리를 먹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에서 인권을 향유하며 긍지높이 살아 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자존심을 칼질을 하고 생생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나라의 존엄을 함부로 힐튼는것이 어떤 후과를 초래할것인가를 알았노는 법이다. 존엄을 힐튼는 원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수는 없다. 강위력한 핵억제력과 최첨단전략기술로테두를 보유한 우리에게는 두려울것이 없다. 인디아학자 푸마르 갈페는 《미국을 괴롭히는 두 력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미국이 패전한 역사적사실과 북조선이 핵보유국이 된 현실을 놓고 대대히 괴로와하고있다. 미국은 이 괴로움과 괴로움을 덜기 위하여 조선전쟁에서의 패배를 《승전》으로, 조선의 핵보유를 비법으로 묘사하고있는데 그러한 행동으로 하여 더 큰 손해를 보고있다.》

미국은 현실을 외무하고 강도적이며 독선적인 적대분리에 기초한 저들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이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광범한 인심을 분노케 하고 또 하나의 거대한 반미열풍을 일으키고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미투쟁의 앞장에 바로 우리 공화국이 서있다.

머지않아 세계는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행동에 대처한 전쟁적위기에 부딪히게 강화될것이라는 우리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민족의 존엄, 참된 인권의 락원인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지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악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다.

배금희

# 우리의 총대는 자비를 모른다

우리 민족의 피를 보려고 날뛰는 승냥이 미제를 때려잡을 때는 왔다고 하면서 만경대구역 금성2동에서 사는 전정로병 신력들은 장상 수심년세월 우리 민족을 핍박하여 당한 불행과 고통이 아직도 직간 맡긴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제를 단죄하고 복수심으로 치장을 뽐내고 분노의 웨침을 터뜨렸다.

우리의 혁명적투쟁력은 지구에서 악의 아성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다. 미국이 운명적인 선택을 한 이상 우리의 총대는 자비를 모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방위원회 성명을 접하고보니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보름강의 녀맹위원장 송양란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이번 《인권결의》라는것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 당이 펼쳐준 락원의 건축물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누리며 청춘의 기상과 열의에 넘쳐 일하는데 인민이 이렇듯 열성스런 것은 또 무슨 낮고대 바깥은 소리로인가. 이 나라의 공민들 아니 세계의 랑심시 미국의 파멸적인 처사에 치를 떨며 침을 뱉고있다. 왜 그럴지 모르겠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현대적인 초고층빌딩들에서 우리의 평범한 인민들이 부친 삶을 누려가고 인민의 모든 꿈이 현실로 되고있는 곳이 바로 우리 나라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생활의 진맛을 알수가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인권》이요 하면서 우리를 결코 드는것을 보니 희망찬 삶,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누리려는 조선의 현실에 뱀뿔하게 질투가 난 모양이다. 아무리 고립압살, 질식시키려고 해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부흥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어떻게 해서나 무너뜨려보려고 그대위 너절 한것을 하고있는것 같은데 어림없다.

우리는 미국이 《인권결의》를 강압통과에 대해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더욱 억척같이 일해나갔다.

미국이 이번 《인권결의》라는것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 당이 펼쳐준 락원의 건축물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누리며 청춘의 기상과 열의에 넘쳐 일하는데 인민이 이렇듯 열성스런 것은 또 무슨 낮고대 바깥은 소리로인가. 이 나라의 공민들 아니 세계의 랑심시 미국의 파멸적인 처사에 치를 떨며 침을 뱉고있다. 왜 그럴지 모르겠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현대적인 초고층빌딩들에서 우리의 평범한 인민들이 부친 삶을 누려가고 인민의 모든 꿈이 현실로 되고있는 곳이 바로 우리 나라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생활의 진맛을 알수가 없다.

미국이 이번 《인권결의》라는것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 당이 펼쳐준 락원의 건축물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누리며 청춘의 기상과 열의에 넘쳐 일하는데 인민이 이렇듯 열성스런 것은 또 무슨 낮고대 바깥은 소리로인가. 이 나라의 공민들 아니 세계의 랑심시 미국의 파멸적인 처사에 치를 떨며 침을 뱉고있다. 왜 그럴지 모르겠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현대적인 초고층빌딩들에서 우리의 평범한 인민들이 부친 삶을 누려가고 인민의 모든 꿈이 현실로 되고있는 곳이 바로 우리 나라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생활의 진맛을 알수가 없다.

#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위대한 평등과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발표 20주에 즈음하여 로씨야인민공화국 연변현관위회회가 1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11월 15일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년세월이 흘렀다. 로작은 발표되자마자 전세계에

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편이이 좌절된것을 기화로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돌이대는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비탄의 목소리를 하여 슬막히던 때에 위인의 저서를 신성한 공기처럼 받아들였다. 태양의 빛과 달의 광을 비추어준 위인의 저서의 구절구절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품모를 그대로 체현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사상적발견과 회상록을 펴내시기시여 근로인민대중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우월하며 위대한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 유럽동맹의 제재조치 비난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9일 자기 나라에 대한 유럽동맹의 새로운 제재조치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유럽동맹이 이란의 개별적기업들과 회사를 제재하기하고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을 포함하여 제재 조치는 이란정부는 이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동맹의 부당한 처사는 현재 진행되고있는 핵개발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과

#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새로운 무장장비 공개 이란정부가 18일 새로운 국산제정승기와 무인기를 공개하였다. 《호메인》도 불리우르 리승기는 순찰 및 훈련용으로서 적용되며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제작한 《아비빌 3》무인기는 8시간 동안 비행할수 있으며 정찰활동에 적합하다고 한다. 한편 이란이 19일 자체의 힘으로 개발한 국산제무인정승기 《피르베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19일 지역적 인 교용용수발진을 위해 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성명은 지역나라들이

교통수분에서 편계를 강화하며 특히 안전하고 효과적의 교용용수발진으로 개발해내려 하고있다. 전염병 방지 노력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 일환으로 메디나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위한 실험실은 새로 건설되었다. 철만성비들을 갖춘 이 실험실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물론 에이즈와 간염 등 각종 전염병을 일으키는 비루스들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수 있다고 한다.



꾸바에서 남새비배관리

# 조선과의 친선협회 년차 총회 진행

조선과의 친선협회 년차 총회가 15일 벨지움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장은 에스파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페나로 데 카모에노를 비롯한 친선협회 지도부 인사들과 영국, 단마르크 등 산하 각국 지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과 선군조선의 소

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총회에는 에스파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페나로 데 카모에노를 비롯한 친선협회 지도부 인사들과 영국, 단마르크 등 산하 각국 지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과 선군조선의 소

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총회에는 에스파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페나로 데 카모에노를 비롯한 친선협회 지도부 인사들과 영국, 단마르크 등 산하 각국 지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과 선군조선의 소

# 미국에서 반인종주의시위 100여일째 계속, 비상사태 선포

미국 미주리주의 퍼주에서 시에서 미국의 인종주의정책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100여일째 계속 벌어지고있다. 지난 8월 이곳에서 백인경찰이 흑인인종주의시위자를 폭행한 후 인종차별행위를 반대하는 시위가 그치지 않고있다. 미주리주에서는 17일 미주리주 당국은 격노한 군중의 시위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하였다.

# 자본주의 사회의 암담한 현실

통계국은 9월에 유로를 사용하는 동맹국인국들에서 경제생산량이 그 전달보다 1.8%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실업자 증대 퍼트끼에에서 8월에 실업자수가 294만명에 달하였다. 이

것은 그 전달보다 7만 7 000명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20일 류형적인 총기범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주에 있는 한 대도시판에 정체범의 범포자가

# 국제협약을 통해 북미국의 중심

국제무대에서 다른 나라들이 국제협약을 준수할것을 훈시할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있는가. 유엔해양법협약문제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이 협약은 1982년에 채택되어 1994년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관계를 규제하는 중요한 법률적문헌으로서 국제적으로 높고 볼 때 《해양헌장》으로 불리우고있다. 이 협약은 바다의 리용이나 개발 등과 관련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고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큰 해양국가중의 하나인 미국은 오늘까지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있다. 현재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중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다. 이것을 놓고 보아도 국제법에 대한 미국도의 편파적 태도를 잘 알수 있다. 미국은 처음에는 이 협약체재를 지지하였다. 유엔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 미국은 협약의 초안작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척 하였다. 그러나 제간접후

이 협약의 일부 부분과 그 부속문건에 큰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이러한 태도변화를 나타내었다는 협약의 일부내용들이 자들의 리기적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매개 나라들은 전속주권수역을 넘어서도 해저가 특지와 연결된 대륙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행권을 주장할수 있게 되어있다. 특히 국제해저구역에 규정된 협약의 제 11장에서는 국가관할범위의 해저자원을 인류공동의 재산이라고 밝히고 그에 따르는 국제적인 조항들을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만일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 다른 나라들의 평행내에서 중요정보에 관한 탐지와 수집을 하면 일련의 장애를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협약가입을 반대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해저구역자원에 발지불공제도에 대해 의문시하면서 미국이 바치는 비용을 비호적인 나라들이 사용할수 있다고 하고있다. 미국은 오늘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자유로운 바다지연개발 및 규제당한다.》라고 떠들고있다. 미국의 리기적인 태도는 다른 국제협약에서도 리형하지 않고있는것이 찾아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은 나라들 사이에 서로의 의무로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들의 총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기는커녕 저들의 리기적목적을 내세우면서 교만하게 늘어

고있다. 최근까지 미국은 공인된 국제법원칙들을 무시하고 꾸바와 이란, 수리아를 비롯한 70여개 나라들에 일방적으로 무관거한 제재를 계속 가하고있다. 현재 미국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반보병지뢰금지협약, 지구온난화협약에 대한 《교포의정서》 등 주요국제협약들에 가입하지 않았고있는데 국제협약을 대하는 미국의 향방주의적이고 리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례이다. 국제협약들이 저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저들에게 불리한것은 협약자체를 파기하는것도 서슴치 않는 미국이다.

#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유린의 왕조

세계력사에는 다른 나라 국권을 마구 유린한 악명높은 침략자들의 범죄행위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한 나라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유해를 미끼로 국권을 갈취하려 한 침략자는 미국밖에 없다. 미제는 바로 우리 나라에서 그런 국악무도한짓을 저질렀다. 그것이 남양군포도굴사건이다. 남양군은 조선봉건정부의 집권자였던 대원군 리하응의 아버지이다. 1863년부터 10년 간 집권한 대원군은 외세력들을 이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들을 격퇴하고 민족의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남양군포도굴을 개척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구원해내려고 하였다. 미제는 이런 대원군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조선침략의 돌파구를 열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제는 조선사람들이 조상을 모시 숭배한다는것을 알고 그를 리용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를 꾸미었다. 그 후가 바로 남양군의 무덤을 파헤쳐 유해를 훔쳐내다 그것을 내걸고 조선봉건정부에 불평등조약을 맺을것을 강요하는것이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준비사업은 상해주재 미국총영사 조지 시워드가 작성주최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는 미국주관관 릴리암 시워드가 주었다. 도굴단의 우두머리로는 이전 상해주재 미국

# 국권강탈을 노린 무덤도굴행위

평사관 통역관이었던 켈킨스가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침략사 《서면》호가 격침된지 2년이 되는 해에 우리 나라에는 미제의 또 다른 침략선들이 기여들게 되었다. 미제는 남양군포도굴에 앞서 《서면》호사건에 대한 《문외》를 구실로 군함 《해난도》호를 대동강하구에 침입시켜 조선사람들의 이목을 모두 거기에 쏠리게 하려고 꾀하였다. 1868년 4월 대구경포 1문과 보통대포 8문 그리고 230여명의 침략무력으로 구성된 《해난도》호는 황해도에 평안도연해를 싸다 나면서 주민들에게 함부로 총을 쏘아대고 포지에 올라 인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등 만행이 일어났다. 그리면서 남양군포도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한편 켈킨스일당은 680t급의 침략선 《차이냐》호를 8t급의 작은 발동선 《코레타》호를 달고 1868년 4월 8일 상해를 출발한 후 일본 나가사키에 들리러 대포와 먹물 등을 비롯한 다음 그곳을 떠나 4월 16일 충청도 아산만에 침입하였다. 4월 18일에는 충청도 홍주군 행당도에 기여들어 조선인민들의 배 2척을 강탈하였다. 100여명의 미국장사관도엔 《코레타》호와 두척의 고기배에 나누어 타고 상륙선을 거슬러올라와 덕산군 구만포에 상륙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퍼어들어 학생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3명에게 부상을 입었다. 한편 영국에서 사회진보파 공화파 커가고있다. 최근 이 나라 중앙정부는 올해 6월까지의 1년 동안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감행된 범죄행위가 총 710만건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 근물고해

알바니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큰물고해를 겪었다. 19일현재 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도로들이 물에 잠기고 다리가 붕괴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한편 우간다에서도 최근 폭우에 의한 큰물고해를 겪었다. 얼마전 유엔이 밝힌데 의하면 나라의 서부지역에서 강물이 범람하고 큰물이 나 1만 6 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긴급소격되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행위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행위

# 반미시위

반미시위

# 우주비행선 폭발

우주비행선 폭발

# 이스라엘의 집요한 유대인청학추악행위

이스라엘이 유대인청학추악행위

# 우주비행선 폭발

우주비행선 폭발